

권동원

1989년도 세계 사료곡물 동향

1. 곡물생산

곡물은 소맥과 쌀 등의 식용곡물과 옥수수, 귀리, 수수, 보리 등의 사료곡물로 구분된다. 세계곡물생산량은 16억톤에 이르며 이중 사료곡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식용곡물인 소맥은 30%, 쌀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식용과 사료용 곡물의 곡종간 혼용이 성행되어 소맥과 쌀이 사료용으로 쓰이며 옥수수가 식용으로 전용되고 있다.

88/89년도 세계곡물 총생산량은 15억3,400만톤이 생산되어 87/88년도에 비하여 4.3%가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사료곡물생산량은 87/88년도에 7억900만톤으로 전년대비 10.2% 감소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기말재고량은 1억 1,485만톤으로 전년도 2억938만톤 보다 45.1%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83/84

년도 이래 최저수준이며 83/84년도 보다 3.7%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료곡물생산의 감소원인은 88

표 1. 세계곡물생산 및 기말재고

(단위 : 백만톤)

구 분	생 산		기말재고	
	1988/89	1987/88	1988/89	1987/88
총 곡 물	1534.0	1602.7	269.0	396.3
소 맥	505.2	504.3	114.3	114.6
쌀(정곡)	302.2	308.7	39.9	42.3
사료곡물	709.0	789.7	114.9	209.4
—옥수수	382.4	444.9	65.0	144.6
대 두	93.8	102.9	12.8	19.1
대 두 박	65.35	67.16	3.07	3.17

년도 미국의 한발과 열파현상으로 인해 중서부지역의 생산이 급속히 감소하였고 소련, 동유럽, 중공 및 캐나다 등도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5,190만톤의 재고가 이월되고 세계적으로도 1억 1,485만톤의 사료곡물이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료곡물의 공급사정은 부족없이 원활하리라 예상된다.

2. 사료곡물

1972년에서 87년사이 15년동안 세계사료곡물생산은 30.7%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사료곡물소비는 30.4% 증가해서 생산증가를 약간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다.

사료곡물생산량은 10.2% 감소될 전망이지만 88/89년도는 생산감소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전년대비 미국은 5%, 세계적으로도 0.5% 감소될 전망이다. 이와같은 예상은 소비량이 공급량의 13.6%인 1억2,700만톤 정도 밑도는 수준이다.

세계사료곡물교역은 지난 15년간 35.4% 증가해서 생산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수출에 있어서

87/88년도의 경우 미국이 세계교역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외의 국가들로는 EC,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태국, 남아공 등이 주요 수출국으로 시장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외 국가들의 수출량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태국은 88/89년도 대풍작을 기록함으로써 수출물량이 5배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료곡물의 수출국은 몇몇 주요생산국에 의해서 좌절되어 있지만 수입국은 각국에 분산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과 소련의 수입물량이 가장 많고 동유럽, 한국 등도 주요수입국이다. 일본은 87/88년도에 2,279만톤을 수입하여 교역량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88/89년도에도 수입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소련은 국내작황호조로 84년 이후 수입이 줄고 있으나 88/89년도 수입은 1,400만톤이 예상되어 전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72/73년도에 40만톤, 77/78년도에 140만톤, 87/88년도에는 520만톤으로 세계3위의 수입국으로 부상하면서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타 주요수입국인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도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88/89년 세계사료곡물수급

(단위 : 백만톤)

구 분	공 급				수 요					
	기초재고	생 산	수 입	공 급 계	국 내 용			수 출	수 요 계	기말재고
					사 료 용	기 타	계			
미 국	134.13	138.99	1.46	274.58	136.89	36.41	173.30	49.38	222.68	51.90
미 국 외	75.25	570.03	98.64	743.92	406.62	223.63	630.25	49.94	680.19	62.75
-아 르 헨 티 나	0.31	14.07	0	14.38	6.39	1.03	7.42	6.65	14.07	0.31
-캐 나 다	6.11	19.09	0.60	25.80	16.04	1.91	17.95	4.20	22.15	3.65
-태 국	0.33	5.30	0	5.63	1.97	0.06	2.03	3.30	5.33	0.31
-E C	13.24	87.82	14.65	115.71	58.82	20.61	79.43	23.26	102.69	13.01
-동 유 럽	4.88	61.86	4.72	71.46	55.41	12.57	67.98	0.86	68.84	2.61
-일 본	2.31	0.36	23.20	25.87	20.30	3.34	23.64	0	23.64	2.24
-소 련	-	100.00	14.00	-	79.60	35.40	115.00	0	115.00	-
세계사료곡물총계	209.38	709.02	100.10	1018.50	543.51	260.04	803.55	99.32	902.87	11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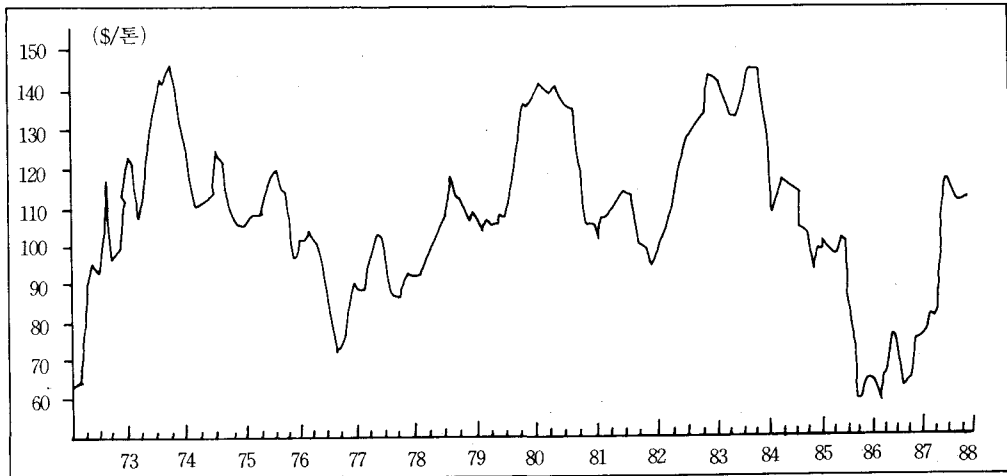


그림 1. 시카고 옥수수가격 장기변동추세(1973-1988)

3. 가격동향

88년 6월 미국 콘벨트지역에서의 곡물감수가 예상되자 사료곡물가격은 폭등하였다. 이는 가뭄피해에 대해 곡물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투기성 가수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곡물가격은 폭등하였지만 7월이후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막대한 이월재고가 남아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져 하락세로 반전된 이후 국제곡물시세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곡물가격은 생산, 재고, 소비 등 수급상황을 비롯해서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정책, 수입국의 수요변동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결정된다. 곡물가격은 재고수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데 지난날의 예로 보아 재고와 교역비율이 1.0~1.5일때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고 이보다 크거나 적을 때는 가격폭락과 폭등을 반복하여 왔다. 85/86년 이후 재고교역비율은 계속 커져 86/87년도에는 2.8, 87/88년도에는 2.6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가격이 폭락하였다. 88/89년도에는 1.3~1.4정도가 예상되어 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안정을 이룰 것이나 85년 이후 비교적 저렴한 곡물을 사용하였던 수입국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주요 사료곡물시세는 옥수수가 140불 대에서 안정세를 이루며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수수도 140불 내외, 대두박 320불 내외의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곡물시세도 옥수수를 중심으로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배합사료업계에서는 이미 연말에 국제곡물시세 변동에 의한 배합사료가격 조정을 끝마쳤다. 88/89년도 세계곡물작황에 의한 사료가격의 변동은 마무리된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주요곡물을 수입에 의존해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지구의 기온이상 보고이다. 미환경보호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온실효과로 극심한 가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바다의 수면을 높이고 농작물 수확을 감소시키며, 산림을 황폐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곡물수급전망을 어둡게 하는 발표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다.

이 온실효과는 세계의 기온을 상승시켜서 이로 인한 미국중서부지역 가뭄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세계곡물생산량 감소 및 재고량 감소로 전세계는 앞으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세계식량수급 사정이 어두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양근희**